

채비

이효주

### S#1. 거실, 밤

창문에 붙어 있는 뽁뽁이 너머로 빗소리가 들린다. 서영(17/여)과 옥순(73/여)이 거실 소파 앞에 나란히 앉아 밥 먹는다. 옥순은 숟가락 내려놓고 약 먹는다.

서영: 벌써 다 먹었어? 좀 더 먹지

옥순: 됐다 입맛 없다

서영: 아싸 그럼 내가 스펀 2개 다 먹는다~

옥순, 밥 먹는 서영 옆에서 뽁뽁이 터트린다.

서영: 그거 재밌어? 내가 사준 컬러링북은 안 하더니.

옥순: 눈 아파서 못한다. 손이 심심하니깐 뭐라도 하는 기지.

서영, 국물에서 건더기 뒤지다가 건져보니 뽁뽁이다. 할머니 쳐다보는 서영.

옥순: 니가 넣었냐?

### S#2. 집 안, 낮

불을 켜지 않아도 햇살이 밝게 들어오는 낮. 다용도실에서 빨래할 옷들을 분류하고 있는 서영. 바지나 외투 주머니에 뭐가 들어있지 않은지 뒤적거리며 확인한다. 할머니 옥순의 외투에서 꼬깃꼬깃한 3만 원 발견하고 눈치 보며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.

서영: 할머니! 겨울옷은 세탁소 맡길 거지?

물으며 다른 주머니도 확인하다가, 구겨진 뽁뽁이가 나온다.

옥순 대답 없다. 서영은 거실로 머리 내밀며 묻는다.

서영: 세탁소 맡길 거냐구(짜증내며)

옥순은 거실 창에 붙어 있는 뽁뽁이 터트리는 데 전념이다.

옥순: 이불 정리할 때가 됐나벼 (햇살을 잔뜩 맞고 있다)

서영: 어휴... 또 탄 소리.

서영, 두꺼운 겨울 이불 세탁기에 쭈셔 넣어보지만 통들이 세탁기 크기가 너무 작아 넘친다.

서영: 어후 옥순 씨(계속 구겨 넣으며), 이거 안 들어가는데?

### S#3. 빌라 계단, 낮

옥순은 세제를, 서영은 고무대야에 이불을 넣어 한아름 들고 계단을 오른다.

서영: 우리도 세탁기 좀 바꾸자니까. 요즘은 건조까지 한 번에 된대.

옥순: 야 우리 집에 그거 두면,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.

### S#4. 옥상, 낮

빌라 옥상, 뭐가 자라고 있는지 모를 화단이 놓여 있고, 빨랫줄이 걸려 있다.

서영: 요즘에 발로 이불 빠는 집이 어디 있어 진짜... 아니 할머니, 인터넷에서 솜이  
불은 물로 빨면 안 된대

옥순: 이거 솜 아니여~ 구스여~

서영과 옥순, 이불 양 끝 잡고 먼지 툄다. 큰 대야에 이불 넣고 옥상에 있는 호스로 고무 다  
라이에 물을 채우는 서영. 옥순, 쭈그려 앉아 화단을 구경하고 있다.

서영: 할머니 뭐 해?

옥순: 김옥순.

서영: (가볍게 한숨 쉬며) 옥순 씨~ 뭐 해

옥순: 요것 봐라, 새싹이 텃어.

서영: 그거 뭔데?

옥순: 몰려~ 잡초겠지. (손으로 살살 건들며) 이놈도 겨울 넘겼네.

서영: 옥순 씨 이리 와, 물 다 찼어.

### S#5. 옥상, 낮

옥순이 쭈그려 앉아 대야에 세제를 한껏 푼다. 손으로 휘휘 젓는다.

서영: 어우 그만그만. 또 세제 많이 푸네.

옥순: 거품 나는 게 이뻐

### S#6. 옥상, 낮

큰 대야에 같이 들어가 이불 밟으며 투닥거린다. 대야 안에는 거품이 잔뜩 일었다.

서영: 아 발 시려 죽겠어.

옥순, 거품을 살짝 떠 투덜거리는 서영에게 후후 날린다. 아이처럼 웃는 옥순.

서영 그 모습에 피식하더니 따라 해보는데, 잘 안 된다.

옥순: 이거 고급기술이여~ 넌 배울라든 아직 멀었다잉

발끈하는 서영, 계속 해보지만 옥순에게 비눗물 뿌리는 꼴이다. 옥순도 서영에게 물 튀기며 장난치고. 계속해서 투닥거리는 둘.

## S#7. 옥상, 낮

교대하며 발로 밟는 듯 대야에는 서영만 있고, 옥순은 어정쩡하게 팔 걷고 서서 서영을 쳐다 보고 있다.

서영: 아니 행귀도 행귀도 계속 드러운 물 나오는데?

옥순: 이거 니 이불이여

서영 나오자 옥순, 대야 들어 물 버린다. 서영은 지친 듯 바닥에 앉는다. 빈 대야에 이불 넣고 발로 밟으며 물기 빼는 옥순.

옥순: 원래 빨래는 말리는 게 제일 중요혀. 제대로 안 말리면 썩은 내 나부러.

어느새 서영은 짚단처럼 엎어져 있다. 발로 서영 쿡쿡 찌르는 옥순.

옥순: 한 번 쪽 짜면 끝잉께 어여 일어나.

서영과 옥순, 회오리 모양으로 비틀어 찐다. 물 먹은 이불 무겁고 커서 둘 다 비틀거린다. 피식피식 웃음이 새어 나온다.

서영: 할머니! 이러다가 날아가 버릴 것 같아.

물기를 짜다가 이불을 펼쳐 팡팡 툰다. 서영 시점에서,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불이 옥순을 가렸다가 보였다가 한다. 세 번쯤 털었을 때, 옥순이 있던 곳에 비눗방울이 수만 방울 일고 옥순이 사라진다. 이불은 힘없이 떨어진다.

(소리)

그 가운데서 할머니! 할머니! 외치는 서영의 목소리.

(장면)

비눗방울로 가득 찬 옥상.

거실 창에 붙어 있는 뽕뽕이, 한쪽 끝이 떨어져 고개 숙이고 있다.

화단에 나 있는 작은 새싹 하나가 바람에 흔들린다.

끝.